



김호신의 피렌체 여행기 영원한 봄을 찾아서

13. 조토의 종탑 (Campanile di Giotto) 1

R과 나는 그래도 이탈리아 젤라토를 맛있게 먹어보려 애썼다. 하지만 불쾌한 경험 때문에 맛도 없었고 솔직히 먹고 싶지도 않았다. 양도 엄청나게 많아서 손 안에서 끈적거리며 흘러내리기 시작하자 우리는 포기하고 쓰레기 통에 넣어 버렸다. 그 때, 젤라토는 맛도 맛있지만 그 고운 색깔을 감상하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달달하게 먹어야 비로소 제 맛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하거나 애매해 하면서 굳은 얼굴로 젤라토를 먹고 있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는가?

허탈한 마음을 털어 버리고 우리는 눈 앞에 나온 조토의 종탑을 향해 달려갔다. 조토의 종탑은 이탈리아어로 '캄파닐레 (Campanile)' 라고 부르는, 문자 그대로 종이 있는 높은 탑이다. 두오모 대성당과 짝을 이루는 건물로 1334년에 당시 피렌체 최고의 화가 조토 디 본도네 (Giotto di Bondone)가 원래 건축가 아르놀포 디 캄비오의 뒤를 이어 설계와 건축을 맡았다. 당시 조토는 67세 였다고 하는데 요즘 나이로도 적지 않은 나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조토를 화가로서만 생각해 오다가 '꽃의 성모 마리아 대 성당' 옆에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종탑을 세운 건축가였다는 것을 깨달으니 새삼 그의 위대함에 고개가 숙여졌다.

종탑은 네모난 식빵을 세워 놓은 듯한 좁은 직사각형으로 84.7미터 높이이다. 종탑의 네 면은 각 14.45미터이고, 탑은 총 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토는 건축가와 화가로서의 역량을 총 동원해 핑크와 은빛, 그리고 에메랄드 빛 대리석으로 성경의 이야기와 인물 조각을 새겨 넣은 아름다운 탑을 세웠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완성한 것은 1층뿐이었고 4년 후에 조토가 죽었을 때 후임 건축가 안드레아 피사노가 조토의 디자인을 충실히 따라 1359년에 완성했다.

우리는 또 한 번 예매 티켓을 들고 입구로 갔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문 앞에는 짙은 눈썹의 잘 생긴 안내원이 서 있었다. 우리는 새치기 모녀로 또 오인 받을까 봐 줄 선 사람들이 티켓을 들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 보았다. 들

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조심스레 줄 앞으로 가 안내원에게 가까이 갔다. 그런데 눈썹을 찡그린 안내원이 그렇게 통명스럽고 무뚝뚝할 수가 없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줄 선 사람들 말고도 관광객들이 쉴 새 없이 와서 그에게 묻는데 정확하게 세 가지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표 어디서 사냐? 표 얼마냐? 몇 시까지 문여냐?' 그는 온 세계로부터 몰려 온 관광객들에게 하루 종일 똑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 원래 상냥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똑같은 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변할 것 같았다.

줄 앞으로 가 당당하게 예매 티켓을 보여주니 안내원이 들어 가라고 손짓을 했다. 드디어 입장. 티켓을 스캔하고 들어가자 그대로 계단이 시작되었다. 이 계단은 빙빙 도는 쿠플라 계단과 달리 그냥 직사각형으로 쭉 올라간다. 아침에 경험이 있는지라 각오를 단단히 했지만 처음부터 숨이 킁킁 막혀서 질식할 것만 같았다. '어, 이게 아닌데. 잘못 들어 왔구나' 라는 후회가 들 정도였다. 이대로 가다간 죽겠다 싶고 그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탑의 첫 번째 층이 나와서 겨우 살아났다. 종탑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고 가운데가 뚫려 있는 구조이다. 각 층마다 벽에 발코니같은 구조물이 있어서 쉴 수도 있고 밖을 내다 볼 수가 있지만 가운데가 텅하니 뚫려 있어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하다. 지금은 그 뚫린 부분에 쇠 그물망을 설치해 놓아서 용감한 사람이라면 그 위를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그대로 뚫려 있었던 그 옛날에는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았다. 1층에서 겨우 숨을 돌리고 또 계단을 올라간다. 금방 다시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상태가 또 습격. 쓰러질 것 같으면 또 한 층이 나오고, 잠시 아찔한 밑을 내려다 보며 쉬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숨이 막히고, 그렇게 올라가기를 3번, 이젠 정말 죽어도 못 올라간다 생각할 때 정상이 나타났다. 414 계단. 84.7미터. 쿠플라보다 낮은데 훨씬 더 힘들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숨을 몰아 쉬며 올라 간 종탑의 정상은 탑 모양처럼 정사각형이었고 빙 둘러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훨씬 더 높은 쿠플라에는 쇠 난간만 있는데 이 곳에는 왜 높은 철조망을 설치했을까? R과 나는 숨을 고르면서 두오모 쿠플라를 올라다보고 눈 아래 펼쳐진 피렌체를 내려다 보았다. 멀리 토스카나 언덕들이 르네상스 그림에 나오는 풍경화 그 자체이다. 똑같이 생겼다. 르네상스 화가들이 상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본대로 그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언덕 밑에는 석양이 내리고 있는 피렌체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만도 블랙박스

714.955.1258

무료 상담·출장·설치

전후방 2채널 초고화질 카메라
포고속 찍 무림 / 초압 30 프레임 실시간



GH200
전후방 HD 고화질 카메라

★ Dash Cam ★ GPS 연동



KP100+
전후방 Full HD 고화질 카메라

Blackbox4you@hotmail.com 11826 Washington Blvd. Santa Fe Springs CA 90670

블랙박스의 필수조건 KS! 무료출장 무료설치
이제는 KS 검증된 블랙박스를 구매하세요!

출·새입 | 자동차 딜러 | 택시 회사 주문 환영 | 함께하실 지사 | 영업 사원 | 설치 기사 모집합니다

Since 1986

ASIANA AIRLINES
KOREAN AIR

파이오니아 여행사

모든 항공권, 모든 관광일정을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립니다. 믿고 문의 하세요!

2019년 봄 성지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9박10일

1인당 **\$1799** + 항공료 별도

출발 2월 25일 (금년 10월 마감)

2019년 가을 성지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9박10일

1인당 **\$1799** + 항공료 별도

출발 9월 6일 (내년 5월 마감)

* 30명 기준 가격입니다.

LA 일일관광 수시출발 (2인이상) \$99

매주토요일 LA,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일일관광 9시 정시출발

★서울왕복★가장싼티켓

모든 항공사 공인 대리점 www.lapioneertour.com

Tel: (562)403-3360

E-mail: pioneertv@yahoo.com

17510 Pioneer Bl. Artesia, CA 90701 (Pioneer / 맥도널드 건너편)



스카이로펌

이민법 전문

Sky Law Firm, P.C.

이민법 - 각종 비자,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한국회계사 경력과 미국 4대 회계법인에서의 Tax Attorney 경력으로 차별화된 분석과 전문화된 준비
E-2 비자 하루만에 이민국의 승인사례!

한국재산 세무컨설팅 - 서울 하늘회계법인과의 협업!

서울 강남소재 하늘회계법인과의 협업으로 한국재산의 관리와 절세컨설팅을 미국에서 편하고 확실하게 한국 부동산의 증여, 양도, 또는 상속 등의 옵션에 따른 절세방안 컨설팅 미국에서 간편하게 한국에서의 세금납부와 명의 변경, 미국으로의 송금까지

이민법과 한국재산 관리에 대한 믿을 수 있는 TOTAL CARE

스카이로펌 (www.skyuslaw.com) & 하늘회계법인(www.skycpa.co.kr)

비이민비자와 취업영주권 (including NIW), 가족영주권, 그리고 미국이민의 최종단계인 시민권까지 철저히 이민법 규정과 판례에 의거,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이민법 & 한국재산관련 세무컨설팅 ☎ 714.522.1033

www.skyuslaw.com / email: young@skyuslaw.com

6 Centerpointe Dr., Suite 700, La Palma, CA 90623



함영심 변호사 (미국변호사 & 한국회계사)

-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 JD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석사졸업
- IL & D.C. Licensed Attorney
- 미국 Ernst & Young에서 Tax Attorney 근무
- 한국 김앤장 근무
- 한국 삼일회계법인 근무

